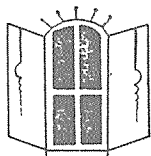


# 쇼팽의 음악과 조국애가 살아 숨쉬는 나라

## 폴란드

### (1)



### 배순덕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하지 두시간여 만에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폴란드 시간으로는 오전 아홉시. 소련과는 한시간의 시차가 있었다.

자유노조의 바웬사와 피아노의 시인 쇼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폴란드. 라듐을 발견한 과학자 퀴리 부인과 더 멀리로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있으며,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면적이 한반도의 1.4배이고, 966년 로마 교황청과 제휴하면서 가톨릭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전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다. 7월22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가톨릭의 각종 절기를 전통 민속절로 삼고 있는 나라다. 북한과는 1948년부터 수교를 맺어왔으나 우리나라와는 그 사십년 후인 1987년 12월 부다페스트에 무역관을 개설하고, 1989년에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입국신고를 하고서 바르샤바 시내로 들어섰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전이였다. 환전은 시내의 은행이나 호텔 등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낡은 상가건물 이층에 우리나라의 전당포처럼 생긴 간단한 환전소도 있었다.

환전소 안에 들어서니 젊은 남자 둘이서 한가하게 잡담을 나누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서 쇠창살에 둘러쳐진 한쪽 모서리를 가리키며 그 쪽으로 오라고 했다.

폴란드의 화폐단위는 즐로티(zloty)와 그로셰(Groszy)이다. 1즐로티는 100그로셰이

고, 일만 즐로티짜리에서 이십 즐로티짜리까지 모두 아홉종류의 지폐와 아홉종류의 동전이 있다.

환전소 창구에 10달러를 내 밀자 십일만 삼천 즐로티의 돈을 건네준다.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십달러짜리 지폐 한장을 달랑 내놓고 십일만 삼천 즐로티나 되는 한응쿰의 돈을 받고 보니 갑자기 숫자의 개념에 혼란이 왔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돈은 많은 것이 아니었다. 폴란드의 물가 숫자가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컬러사진이 곁들여진 60페이지짜리 책 한권이 칠만 즐로티였고, 카메라의 필름은 십만 즐로티가 넘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이백에서 오백 즐로티의 돈을 쥐야 한다. 그러니 십일만 즐로티래야 별 것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나는 바르샤바에 머무는 동안 내내 폴란드의 십일만 즐로티와 우리나라의 십일만원을 계속 혼동하며 지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세계 제2차대전 이 끝나기 직전 나찌에 의해 시내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 특히 '스타레미야스트'라고 불리우는 구 시가는 종전 직전 독일 점령하의 시민군이 격렬하게 봉기하였다가 거리 전체가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다. 1944년 8월 1일부터 63일간의 항거였다. 조국해방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이십여만 명의 사망자만 내고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 다.

그러나 1945년 1월 나찌로부터 해방된 이듬 해부터, 시민들의 기억과 흔적에 의한



▲ 쇼팽 기념관 안의 박물관에 있는 쇼팽 흉상

재건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단결력과 불굴의 정신은 당시의 모습을 벽돌 하나 틀리지 않게 전쟁 전의 모습으로 복원해 놓았다고 한다.

현재 구 시가 거리에는 17세기 무렵의 중세 바로크식 집들과, 고딕건물이 늘어 서 있어, 구 시가다운 중후한 멋과 분위기가 한껏 풍긴다. 그러나 기실은 해방 후에 재건된 새로운 도시인 셈이다.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숙소인 MDM호텔을 벗어나서 멀리까지 거리를 산책했다. 회색의 상가건물은 아직 굳게 문이 닫힌 채였고 어느 거리엔가 웅장한 자태로 서 있는 가톨릭 성당, 그리고 골목 어귀나 거리 모퉁이에 드문드문 야채와 과일, 꽃 등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다. 이슬맺힌 공원의 잔디위를 주인을 따라 경충경충 뛰어가는 검은 개를 보았고, 붉은 꽃 한송이를 조심스럽게

들고 가는 노인의 등 뒤로 이제 막 어둠을 몰아낸 햇살 한줄기가 부드럽게 내비치고 있었다.

나무가 우거진 공원 사이로 난 길을 걷고 있는데 이차대전 때 파괴되지 않고 무사히 남아있는 집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 가 보니 오랜 풍상을 겪어 온 그 건물들은 초라해 보이기 보다는 오히려 묵직하고 편안한 느낌이였다.

지금은 서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물 군데군데에 남아 있는 총탄 자국이 사십여년전 바르샤바가 겪었던 전쟁의 상처와 참상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했다. 더욱 인상깊은 것은 그러한 건물들을 허물어 버리지 않고 그대로 소중히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국민성이다.

그들에게 집을 지을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구 시가를 재건한 시민들의 정신성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았다. 아직 몇십년은 더 살 수 있는 집들도 주변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의 상품성을 먼저 생각하며, 아쉬움 없이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 요즈음의 우리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폴란드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많이 닮았다. 그들 나름대로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워 번성했던 시기도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점령당한 시기도 있었으며 해방과 더불어 이루어진 국토의 분단, 소련에의 예속화, 그리고 자유노조 출신의 바웬사 대통령이 등장하기까지 공산당 세력의 일당 독재가 계속 되어왔던 곳

이기도 하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조국 폴란드를 떠나 프랑스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음악가 쇼팽은, “내 몸은 죽어 프랑스에 있지만 내 영혼은 언제나 폴란드에 있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말은 어려웠던 시절의 폴란드인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쇼팽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구 시가 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왕의 동상. 검을 들고 있는 왕의 모습은 폴란드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945년 6월 나치로부터 해방된  
 이듬해부터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기억과  
 흔적에 의해  
 재건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단결력과 불굴의 정신은 당시의  
 모습을 백돌하나 틀리지 않게 전쟁 전의  
 모습으로  
 복원에 놓았다고 한다.  
 ”

와지엔키 공원의 쇼팽상과 코페르니쿠스 거리에 있는 쇼팽기념관, 쇼팽의 생가, 그리고 쇼팽이 등장하는 5,000 즐로티 짜리 지폐, 쇼팽호 열차와 쇼팽 얼굴이 그려진 우표 등... 이것들만 보아도 쇼팽은 그들 폴란드인에게는 국민적인 영웅이며 자존심임에 틀림없음을 짐작케 한다.

그날 저녁 자유시간에 나는 쇼팽기념관의 음악회에 갔다. 입장료는 예약과 함께 선불이었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30달러쯤 되었던 것 같다. 기념관은 이층으로 된 건물로, 전에 귀족이 살던 작은 성을 개조한 것이라고 했다. 일층과 이층에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 중 가장 큰 방이 음악회장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방중의 일부가 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생전의 쇼팽이 사용하던 여러 종류의 악보와 소지품 등이 다채롭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에 가운데에, 눈에 번쩍 떠는 것은 고개를 뒤로 한껏 젖힌 채 하

늘을 우러러 절규하는 듯한 쇼팽의 흉상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웬일인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 온 것은. 가만히 다가 가서 흉상의 얼굴을 쓸어 보았다. 더듬는 손끝을 통하여 가슴에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 젊은 그가 감당해내기에 힘들었을 모든 인간적인 번뇌와 고통의 무게, 그리고 그것들을 한데 모아 선율로 표현해 낼 수 밖에 없었던 한 음악가의 투명한 예술혼이 아직도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듯했다. ☹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

